

Power-Gen International 2011 참관기



문우룡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소 과장

담대한 희망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 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 백번을 이긴다’가 아니라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 병법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미국 라스베가스 PGI(power-gen international)에서 내 젊은 날을 반성하고, 전향의 기회가 되었음을 자인하는 ‘마흔의 내가 세상을 향해 보내는 행복 선언문’을 작성한다.

골드 마이너

경쟁상대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을 때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선제(先制)’, 쉬지 않고 사업을 주도하는 ‘주동(主動)’, 상대가 다른 곳에 집중할 때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의표(意表)’로서 100년에 걸칠 이득을 찾아 나는 미국 라스베가스 PGI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잭웰치가 사용한 ‘선택과 집중’의 경영전략인 ‘세계시장에서 현재 1등을 하고 있거나, 곧 1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때려치워라’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엘도라도 스테이트(황금의 땅) 캘리포니아로 날아올랐다. Blue Jean과 트래킹화를 신은 내 자신이 금 노다지를 찾아 서부로 이동했던 골드 마이너였기에 장거리 여행의 고단함은 잊어버린지 오래였다.





용간用間 - 아는 자가 이긴다.¹⁾

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향간(鄉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死間), 생간(生間)이 있다. 이 5가지를 모두 쓰면서 적을 모르게 하면 신기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최고경영자의 보배인 것이다.

향간은 적지에 사는 보통사람이고, 내간은 적의 고위급 인사이다. 반간은 적의 간첩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고, 사간은 허위 정보를 적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생간은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보는 돈이다. 한 줄의 정보가 억만금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 잃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를 얻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가치 있는 정보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하는 6박 9일의 대 여정이 나의 심장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Power-Gen International Session

Power-Gen International 프로그램 위원회 의장인 Mr. Russell Ray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어진 Keynote Speech에서 미쓰비시 POWER 미국 부사장인 Mr. David Walsh는 ‘Changing Course’ 라는 주제로 “2022년 석탄 화력을 줄이고 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1)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강상구, P303

천연가스 원가 저하로 전력원가가 낮아진다는 설명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그들의 가스터빈(M501 Series)이 우수하다는 프리젠테이션은 왠지 모를 관조적 비애를 자아내게 했다. 내 나라에서는 저러한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카메라 셔터만 눌러대는 것뿐이었다. 주변의 수많은 Global 전력산업 관계자들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내가 참석한 PGI Conference Sessions에서는 Siemens 관계자의 Steam Turbine의 Modernization에 대한 내용이였다. 가까운 미래 중압터빈의 형상변화로 Reliability, Availability, Efficiency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였다.

전시홀(Exhibit Hall)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PGI에서 느낀 것은 딱 두 가지이다. '살아남은 집단이 강한 집단이고, 세상은 철저하게 강자 중심이다' 라는 사실이다. 마흔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은 훨씬 컸다. 힐튼 컨벤션 센터 한가운데서 수많은 경쟁기업들이 난립한 가운데 경제 춘추전국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만 한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였다. 어쩌면 그들과 싸워 이기기보다는 지지 않고 살아남기가 더 급한 과제이었음을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올바른 표현일지 모른다. 남의 밥그릇 빼앗기를 논하기 전에 내 밥그릇을 지켜야 한다는 담대한 각오를 해야만 했다.

미국 라스베가스 PGI Booth에 전시된 약 1,800여 Item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플랜트, 터빈 Blades, 터빈 Maintenances, 비상발전기, 풍력발전, 보일러 버너, 보일러 튜브 Coating 기술, 제어, 전기, Inspection 장비 등이 주로 전시되어 있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물에서 나는 자꾸만 주눅이 들었다.

중국의 한 회사에서 출품한 7,000볼짜리 현지판매용 비상발전기 엔진은 다른 MITSUBISHI나 AKSA 엔진보다 수준이 매우 낮아 보였다.

하지만 'CHINA' 라고 적힌 그들 Booth 간판의 큰 글씨처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이 매우 인상적이였다.

Exhibitor Booth의 방문 및 정보 수집은 하루 이들의 여정으로는 수박 겉핥기 식의 이벤트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너무 넓은 전시홀은 각사에서 출품한 Item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정을 매우 힘들게 했다.





그러나 모하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것 같은 기쁨을 준 것은 두산의 Booth와 현대중공업 및 효성 등의 국산 Vendor 제품들이었다. Global 기업임을 마케팅 하고자 했는지 중국의 Booth들처럼 KOREA라는 문구가 없는 것이 약간은 아쉬웠다.

하지만 괜찮다. 내나라 내국민이 생산한 제품이 International 된 것이 너무 기뻐다. 이뿐만 아니라 전시장 맨 구석에서 만난 KOREA Booth는 자발적 애국심이 생겨나도록 즐거움을 주었다. 중소기업도 아닌 비록 몇 개 벤처기업 수준의 Vendor Booth 규모였지만 나의 피곤함을 잊도록 해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KOREA Vendor를 이끌고 온 My Company, Our Company KOSEP, 한국남동발전(주)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또 다른 큰 기쁨은 Exhibitor Booth도 없이 해외영업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던 한국의 젊은 Global 보부상을 만난 것이었다. 국내에서 두 번 만났던 탈질축매 제조기업인 NANO(주) 라는 회사의 직원들이었다. 젊은 두 보부상이 회사의 팜플렛을 들고 필요 Booth를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의 손을 꼭 붙잡는 것 외에는 도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숫대(희망)

팜스프링스 민동산의 31개 단지 3,200개 풍력발전기를 보고 나는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셔터만 계속 눌렀다.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 200mm밖에 되지 않아 관목림이라고는 구경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바다와 사막의 두 지층이 만나 거대 협곡을 이룬 곳에서 수 십 년 전부터 자연의 운동에너지인 풍력으로 650MW 전력을 생산, 30만 가구에 공급한다는 사실이 적잖게 나를 놀라게 했다.

또한, 샌고로니오 협곡은 새들의 이동로여서 풍력발전기에 의한 새들의 주검이 많은 것과 관련, 환경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자연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새삼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몇 년 전 국내 모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경험했던 내 자신이 적잖게 당황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Mr. Ken husky의 설명을 통역하던 가이드를 대신해서 부연 설명까지 곁들여 주신 한국남동발전(주) 이상규 부장의 네이티브 스피치는 가이드를 머쓱하게 했다. 공룡탑 팀장의 풍력발전기의 안전 및 화재사고의 방지와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Mr. Ken husky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무인 천연가스 발전소와 전 세계 풍력발전 Manufacture의 전시장이기도 한 이곳도 단연 일본의 제품 (MITSUBISHI)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세계를 말아먹자”라고 외치던 옴니엘피에스 대표의 자신감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며, 한국의 솟대 모양 풍력발전기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랜드 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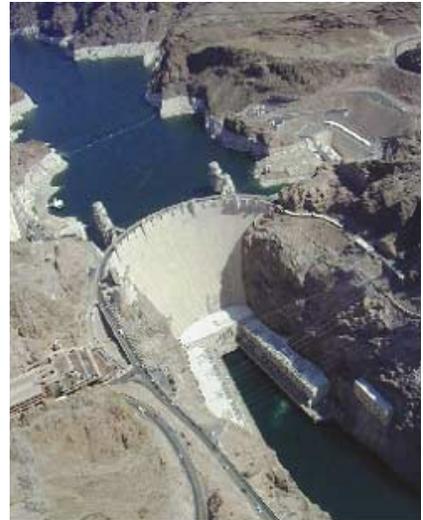
모하비 사막을 횡단하는 코치(Coach) 버스는 끝없는 지평선을 달렸다. 사막의 중간에서 만난 대륙횡단열차(기관차 4대와 100량의 화물객차)의 길이는 감탄사 밖에 나오질 않았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미국에는 서부 대철도가 있다고 할 만하다. 神을 찾지 않고는 신과 함께 건너지 않는다면 모하비 사막 3만 8,850km²를 건널 엄두는 내지 못할 것 같다.



동양의 해송분재 같은 작은 선인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너울파도 같은 약86km의 도로를 달린 후 국립공원 초입에 도착했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관목숲 사이로 보이는 블랙앵거스(미국소)의 유유자적함을 구경하며 협곡단애의 서부 그랜드 캐년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말벌집 같은 적벽赤壁의 그랜드 캐년이 미국에만 있다는 것은 조물주의 편애로 여길 수밖에 없으리라. 프레임 속에 시공(時空)을 담았다. 저멀리 흙색의 콜로라도 강물이 흘러 간다.

Hoover Dam

발전설비 현장견학의 두 번째 코스는 후버댐이었다. 뉴딜정책의 상징적 건축물인 Hoover dam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근교의 Black Canyon에 위치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강물을 막아 홍수조절과 전력생산, 그리고 네바다주를 비롯한 근처 6개 카운티의 식수를 공급한다고 하나 그 규모가 상상이 가질 않았다. Arizona time과 Nevada time의 경계를 이루는 콜로라도 강에 자리잡은 Hoover dam은 발전용량 2,08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삼천포 화력 4개 호기와 맞먹는 규모이다. 중국인들에 의해 건설되어진 Hoover Dam은 영화 트랜스포머 1에 나왔으며,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댐으로 1936년에 완성되어 320억m³의 저수량을 담은 미드호를 유지시키고 있다. 자연과 인간에 의해 시공(施工)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벽이 LCD 화면 속에 담긴다.



에필로그

급변하는 시대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변화무쌍한 트렌드를 읽어내는 감수성, 두 번째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헌신 Collective Commitments이 그것이다. 미국 라스베가스 PGI는 나에게 탈 갈라파고스화²⁾로 반도를 넘어 더 큰 대륙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게한 곳이었다.

일년지계(一年之計)는 곡식을 심는 일이고, 십년지계(十年之計)는 나무를 심는 일이며, 백년지계(百年之計)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고 한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잠재력으로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들고 싶다.

매일이 새로워야 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³⁾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인데 PGI 참관을 통해 전향의 기회를 주신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부회장님과 안영태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 한다. KEA

2) 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

3) 이기는 정주영 지지않는 이병철, 박상하, P170